

보이는 것은, 오직 지평선뿐...

HOKKAIDO
NAKASHIBETSU

나카시베쓰



‘홋카이도에 왔다!’ 고 실감

홋카이도 나카시베쓰초. 이곳은 네무로 대지의 중앙부. 보이는 것은 오직 끝없이 펼쳐지는 목초지대뿐인 대지를 낙엽송의 방풍림이 갈라놓는다. 푸르른 대지를 둘로 가르듯 길게 뻗은 직선 도로의 상쾌한 드라이브는 이곳이 홋카이도라는 사실을 재확인시켜 준다.

2만 4,000명이라는 인구도 이곳에선 극단적으로 너무 적다. 그만큼 넓은 공간을 지배하는 것은 태고부터 연면히 이어져 온 사람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대자연이다. 옆드리면 코가 닿을 정도로 가까운 곳에 세계 유산으로 지정된 시레토고 반도가 있다. 수많은 새들도 주저함이 없이 날아온다. 우라마슈 전망대에서는 마슈코 호수의 비밀스러운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 많은 여행자를 매료하고 있다.



비경 '요로우시 온천'



홋카이도 유산 '네무로 대지의 격자 모양 방풍림'

세계 자연유산 시레토코의 현관

나카시베쓰에는 시레토코의 하늘의 현관인 '나카시베쓰 공항'이 있으며 도쿄와 삿포로를 직행편으로 연결하고 있다. 나카시베쓰는 시레토코 연산의 산자락에 있으며 나카시베쓰초부터 시레토코의 산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다. 이곳에 한 발짝 발을 내딛으면 시레토코의 품에 폭 안긴듯한 느낌을 실감할 수 있다.

주위에 절벽이 많은 세계 자연유산에 등록된 시레토고 반도의 준엄하고 격렬한 자연환경이 인간의 침입을 거절하고 있다. 그러나 이곳은 동식물의 보고다. 바다사자나 바다표범 등의 바다짐승, 사시사철 계절의 아름다운 꽃들이 관광객을 만겨준다. 산책길의 정비와 관광선의 취향으로 안전하게 홋카이도의 대자연을 즐길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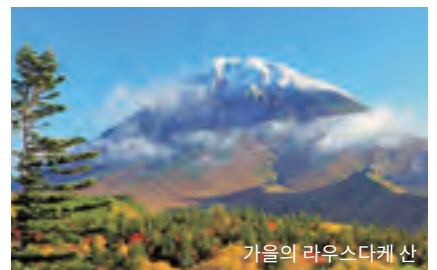
범고래

촬영자 : 다케무라 아키코



점박이물범

촬영자 : 다모토 기미코



가을의 라우스다케 산

촬영자 : 우에다 미쓰구



흰죽지참수리

촬영자 : 가와카미 야스노리